월/요/광/장

김배성

고유가 시대, 농업도 대비해야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초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던 유가가 현재 70달러 후반 수준으로 무려 75% 가량 상승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유가의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들의 유류수요의 증가로 유가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7월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직간접인 파급 영향으로 지난해 말 40달러 수준까지 고점대비 무려 70%나 급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제상황에 종속적으로 결정되어온 유가가 향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완만히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경험적으로 자연스런 전망인 것 같다.

내년에 국제유가는 연평균 90달러 수준, 높게는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국내외 경제회복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다.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자재 및 수송비 등의 증가로 인해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고, 생산비의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할 것은 유가상승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이 농업부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그 영향이 적어 무시해도 되기 때문일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유가상승은 농업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농업용 시설난방 연료비 상승을 야기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등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곡물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바이오연료의 수요를 증대시켜 국제곡물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국내 가공식품 가격 및 사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유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설농업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농업용 난방 시설면적은 약 1만 3천ha, 이중 유류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은 약 7천ha이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유가가 현 수준인 70달러 수준일 때 이러한 고온성 작물 시설에 투입되는 면세유 사용액은 약 1조억 원 수준이나, 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동일한 량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액은 3천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만큼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비용을 초래하는 유류 사용 구조를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유가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농업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농업부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는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동력화하는 기술, 지열을 사용해 냉난방이 가능한 기술, 목재 펠릿을 이용한 기술, 태양열을 이용한 기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원들은 생산비를 줄이고, 탄소발생을 저감시키는 저탄소 녹색에너지원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기술개발 진입단계로 설치비 부담이 크거나,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확대 보급하기엔 이른 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유가-고비용 상황을 앞에 두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지금단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더라도 실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에서 지열과 목재 펠릿을 이용한 기술이 적용가능한 대안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기술은 정부의 면세유 지출예산을 줄이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탄소발생을 저감시키면서 생산량도 늘릴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모로 유용한 기술이지만 사업이 실시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대안들의 시행은 무엇보다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책적 의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물론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 근거해 표출된다. 고유가 시대에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이 그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가는 오르고 있다. 농업부문에도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방법을 넘어서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배웅

‘문화환경도시 광주’ 오늘과 내일

설악산 대청봉의 이른 눈과 함께한 단풍 소식이 어느덧 지리산에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접한다. 광주 도심의 나무들도 가을 옷을 입은 지 오래고 거리 위에는 떨어진 잎들이 뒹군다. 과거에는 대학 교정에서나 느낄 법한 낭만을 광주 거리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는 계절을 막론하고 쉼과 낭만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광주의 주요 관문인 운암동, 광주역, 광천터미널, 백운동 로터리 등에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사계절 푸르게 우뚝 자리하고 있어 의향으로서의 광주의 정신을 표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에는 속속 소공원이 조성되어 삭막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필자는 호주 시드니 더들리 페이지에서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시드니 항만과 오페라 하우스 등 시드니 시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바라본 시드니는 온통 푸른 숲에 점점이 박히듯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온통 초록과 푸른 바다빛만이 전부인 듯했다. 우리나라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는 풍경.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여행기간 내내 호주인들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듣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그들의 정신이 시드니를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만들고 그 자체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광주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이나 영남권으로 대거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기반 시설을 착실히 건설하고,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잊혀졌던, 혹은 주변문화로 인식되어 소홀하게 여겨왔던 지역의 소중한 문화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야 할 듯하다.

동시에 생태환경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사업들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광주천은 낚시를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족끼리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광주공원 주변도 원형대로 복원이 추진된다고 한다. 도심의 자투리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작지만 그 지역의 이미지를 혁신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곳에서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다. 밀집된 주택가 담장을 나무로 대체하는 사업, 각종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한 숲 조성 사업, 8차선 이상이 확보된 도로의 중앙선을 나무로 대체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광주는 청계천처럼 인공으로 덧칠한 하천과는 완연히 다른 생태적으로 건강한 광주천과 건물의 높이만을 자랑하는 랜드마크 등에 사로잡히지 않은 도심의 모습 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문화와 환경의 중심도시로서의 광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필자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주도한, 1000년 수도로서의 문화와 잘 가꾸어진 자연환경에 기반한 교토의 자신감에 주목한다. 그들은 이제 ‘세계문화자유도시’를 선언하고 있다.

“도시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 이상이 세계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스스로의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존재하며, 시민이 그 이상 실현에 노력한다면 그 도시는 세계사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중략) 교토는 넓은 세계와 문화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우수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영원히 새로운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 선언서에 나타난 그들의 미래지향적인 의지와 실천에 대한 결의가 우리 광주에서보다 튼실하게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사람을 살리는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런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온 광주시장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시민의 지지와 성원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10을 이룩한 기아타이거즈와 9회말 역전 홈런’ 이것이 광주시민과 미래 광주의 진정한 힘임을 믿는다.

〈광주시치과의사회 회장〉

기 고

양혜령

‘가정복지도우미 제도’에 관하여

엊그제 지난 4년간 계획해 선거 때 공약했던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장여성으로서 겪었던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을 돕고자 조례를 만들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이 조례에 대해, 최근 보육관련 단체들로부터 뜻밖의 항의를 받았기에 개최했던 것이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과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었기에 지면상으로나마 설명을 추가해 보려 한다.

현재 광주 출산율은 1.19명으로 낮아졌고,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8.5%를 차지해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고령자의 정의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있다. 또, 보통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는 55세 이상이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딸과 며느리들을 위해 육아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지만 여의치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육아·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고달픈 20~40대의 젊은 여성들을 사회가 도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만혼이나 출산기피 현상이 줄고, 저출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회적 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웃에 사는 고령자(55세 이상)가 부분시간 근로(가사와 아동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하루 2시간 이내), 출퇴근 시간(시간당 4천원의 수당:이용자의 급여에 따라 부분적인 지원 가능) 등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젊은 여성을 돕는, ‘이웃가족 행복시대’를 여는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즉, 고령자에게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여유(1달에 20만 원정도)도 누리게 한다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돼 ‘고령화 대책’의 기틀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제도’나 ‘워킹맘 지원사업’ 등과의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 적기 어려우나, 이들 제도가 ‘가정복지도우미제도’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날, 이 조례는 ‘폐기되어도 좋다’는 언급만 해두고자 한다.

이 조례가 ‘저 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광주만의 독특한 조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속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며, 동시에 일부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려 한다.

〈광주시의원〉

워킹맘에 절실한 ‘육아 휴직’

산전·후 나눠 쓸 수 있었으면

그동안의 출산 장려정책은 대부분 출산수당, 육아수당 같은 경제적 보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하는 여성이 많은 시대에는 무엇보다 육아휴직이 절실하다. 첫아이 임신 후 6개월 정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만삭의 몸으로 출퇴근할 때의 어려움과 위험성, 막연히 비능률적일 것이라는 직장 내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둘째를 가질 용기가 사라진다.

얼마 전 임신 7개월째인 조카가 출근하면서 힘들어 하기에 육아휴직을 미리 쓰라고 권했는데, 육아휴직은 출산 1개월 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예나 지금이나 그런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었다. 임신 중 힘든 시기는 개인차가 있게 마련인데 일률적으로 1개월 전부터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육아휴직은 개인차에 따라 산전 산후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월급이 나오는 법정휴직은 휴직대로 적용하고, 그 외 산전산후에 산모가 알아서 쉬는 날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급휴직을 하면 무리가 없을듯하다.

▲윤현숙·순천시 안풍동

사 설

‘국회예산 심의’ 현안사업비 증액 기대한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께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앞으로 2주간이 최대 고비인 셈이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공과 지원법 제정으로 순항이 기대됐던 포뮬러원(F1)대회가 경주장 건설비용 등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위기에 봉착했다. 경주장 건설 등에 필요한 1천260억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내년 10월로 예정된 코리아 그랑프리 자체가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당초 요구액 4천8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천500억원만 배정됐다.

올해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 전국 지자체가 사상 유례없는 ‘예산 확보전쟁’을 벌였다.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치밀한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고 사전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제기됐던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간 불협화음은 현안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던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비 확보와 관련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볼썽 사나운 모습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 ‘전남 한옥마을’

전남에 있는 한옥마을이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옥마을에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내에 조성된 한옥 행복마을은 51개소다. 146동의 한옥이 건립됐고 464동이 신축중이며 내년에는 500동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옥 행복마을에는 147명의 외지인이 새롭게 터를 다졌고 매달 70여명 정도가 귀농을 문의해오고 있다. 벌써 주변 토지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한옥 마을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한 몫하고 있다. 올 여름 휴가철에만 5천여만원의 민박 소득을 올렸고 일부 한옥마을은 지금도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만원 사례를 이룰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민박은 단순한 관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증가로도 이어진다. 농촌을 찾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값싸고 싱싱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기 마련이다.

특히 한옥마을과 전남에 있는 슬로시티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등 4개 슬로시티 지역에 한옥 민박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슬로시티 지역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있으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러 왔다. 슬로시티 한옥 민박촌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하게 한옥 마을만 조성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 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한옥마을이 낙후된 전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불안의 시대

집을 나선지 한참 만에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확인해본 적이 있는가. 가끔씩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이는가. 안절부절 못하고 숨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은 순간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도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불안장애’ 증상을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항목들 중 일부다.

최근 뚜렷한 이유없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이 34만명(2005년)에 육박한다. 대한불안의학회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이 ‘불안’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러한 불안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된 탓일 게다. 불안한 미래와 취업난, 구조조정 등 직장내 스트레스는 이를 더욱 증폭시킨다. 매사에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도 한 몫 거든다. 있는 사람은 빼앗길까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하다. 컴퓨터로,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10대들의 불안장애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급기야 대한불안의학회는 2006년부터 매년 이맘때 ‘불안선별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정보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조선대 보건진료소도 지난 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불안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흔한 증상 중 하나다. 그 뿌리는 욕망이니 적당하면 삶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다른 뭔가에 집착할 경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

관건은 결국 마음이다. ‘빠름’과 ‘무한경쟁’ 대신 ‘느림’과 ‘공존’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려, 욕심과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불안 끝, 행복 시작’ 아니겠는가. 그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